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설미라는 처녀애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두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어려있는듯 했습니다.

설미는 마음이 참 고운 처녀였습니다.

마을의 동생들이 개울을 건너지 못해 안타까와할 때도 설미는 그들을 업어 건네주었고 옆집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 허리를 다쳤을 때도 눈물을 머금고 극성스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설미더러 고운 눈물처녀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이 헤픈 처녀는 하치않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설미한테 말하였습니다.

《 흐르는 눈물속에는 만가지 마음이 비긴다고 했거늘 사람은 언제나 뜨거운 눈물만을 안고 살아야 한다. 》

설미는 어머니의 그 말이 아리송하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무엇인지...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열세살 난 설미한테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몸져 누운것입니다.

설미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일어서게 할까 늘 생각던 끝에 수정봉에 있는 산삼을 캐다드리면 낫게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정봉을 향해 떠났습니다.

옆집 할머니한테 그간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집을 떠나는 설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런 사흘 높고높은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걷고 또 걷던 설미는 어느날 산기슭에 이르러 한 총각애를 만났습니다.

총각애는 기력이 없는지 양지쪽 잔디밭에 앉아 눈을 감았다떴다하며 즐고있었습니다.

《애야, 넌 왜 거기에 앉아 즐고있니?》

설미는 살뜰하게 물었습니다.

《조는게 아니라 맥이 없어 그래.》

총각애는 숨을 할딱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세수를 해봤는지 뽀얗게 먼지오른 얼굴에는 흘러 내린 눈물자욱이 줄줄이 나있고 두눈은 정기가 풀려있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겨진 바지가랭이사이로는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보였습니다.

《우선 무얼 좀 먹어야겠는데...》

설미는 들고가던 보자기를 풀어헤쳤습니다.

순간 설미는 맥이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가지고 떠났던 강낭떡을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보자기안에는 짙신 한켄레밖에 없었습니다.

《애야, 눈을 떠라. 맥을 놓으면 안돼.》

설미는 총각애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애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설미를 만난 다음부터 더 맥을 놓았는지 총각애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숨만 할딱이고있었습니다.

《애야, 넌 며칠을 굶었니?》

《몰라, 많이 굶었어.》

며칠인지 가늠할수조차없이 굶어 쓰러진 총각애를 안고 설미는 안타까와 그만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눈마저 뜨지 못할가. 무엇을 좀 먹어야겠는데… 야 참.》

설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총각애를 잔디에 눕혀놓고 먹을것을 구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등뒤에서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 처녀야, 넌 왜 이 귀한 눈물방울을 흘리니?》

《할머니는 누구세요?》

《난 눈물할머니다. 사람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다가 따듯한 눈물을 흘릴 땐 구슬로 되게 하지.》

놀라와하는 설미에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네 눈물방울이 따끈따끈하더구나. 귀한 눈물방울이길래 이렇게 따라오며 주었다. 만져보렴.》

눈물할머니는 쥐고있던 주먹만 한 빨간 단지뚜껑을 열더니 눈물구슬 두개를 꺼내서 설미의 손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이 구슬을 필요할 때 한알씩 먹으면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일이 될수 있다.》

《고마와요. 할머니.》

설미는 두알의 눈물구슬알을 저고리고름끝에 넣고 꼭 동여맸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는데…)

순간 눈물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설미는 이상하여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가 칠히리를 췌습니다.

총각애한테 달려온 설미는 칠히리껍질을 벗기고 쪽쪽 찢어서 총각애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힘을 내서 씹어라. 그렇지 않다간 쓰러진다.》

총각애는 잘근잘근 칠히리를 씹고나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니?》

《응.》

《그런데 네 이름이 뭐냐?》

《무장쇠라고 해.》

《무장쇠? 호호… 이름이 참 좋구나. 그런데 넌 왜 여기에 있지?》

설미의 물음에 총각애는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봐. 바다가 우리 마을에 기여든 왜놈오랑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집을 불태웠어. 불붙는 집속에서 난 두눈을 잃었어.》

설미는 총각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왜놈들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앞도 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이 교장, 저 교장 살 곳을 찾아 헤매었을 총각애를 생각하니 설음이 북받쳐올라 설미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귀여운 애를, 이 귀여운 총각애를 이 지경 만들다니.》

설미는 헉헉 흐느꼈습니다.

《누나, 우나?》

총각애는 더듬더듬 설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누나, 울지 마. 아까도 울었지?》

얼살도 못되는 총각은 오히려 설미를 위로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눈까지 먼 네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
가겠니. 아, 내가 너한테 눈 하나라도 줄수 있다면 얼마나
나 좋겠니. 무장쇠야.》

설미는 총각애의 얼굴에 볼을 비볐습니다.

《누나, 고마와. 살뜰한 누나의 얼굴을 단 한번이라도
봤으면…》 총각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어찌면 이런 불쌍한 애도 있담.》

설미는 눈먼 총각애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무장쇠가 앞을 보게 하는 약은 없을가?)

순간 설미는 눈물할머니가 준 눈물구슬알이 생각나서
한알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미의 눈물이 총각애의 눈에 떨어져 들어가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던 총각이 와들 놀라며 눈을 비볐습니다.

《누나, 누나가 보여. 야 정말 멋있네.》

다시 보니 무장쇠의 눈엔 정기가 돌았습니다.

《야!》

총각애는 설미의 손목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참 신기하기도
해.》

《누나야, 나도 함께 갈테야.》

《그래, 함께 가자.》

둘은 손을 잡고 수정봉을 향해 떠났습니다.

수정봉은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수정봉을 바라보며 걸어가던 그들은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앞에는 자그마한 개울이 나타났는데 다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개울이지만 어찌나 깊은지 돌다리도 놓을수 없었습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개울로 들어가던 설미는 그만 개울에 빠지고말았습니다.

무장쇠도 빠졌습시다.

겨우 기슭으로 다시 나온 설미와 총각애는 바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누나야, 개울을 에돌아갈가?》

무장쇠의 말에 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고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디에 다리가 있을지 알수도 없는 길을 에돌아갈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건너보자.》

둘은 손을 맞잡고 다시 개울물에 발을 잠그었습니다.

하지만 키를 넘는 물속을 건너갈수가 없어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정말 야단났는데.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고 했지?》

총각애가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자 설미는 그만 설음이 북받쳐 흑흑 흐느꼈습시다.

(이젠 수정봉으로 갈수 없단 말인가?)

설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바라보는 잠간사이에 좁던 개울이 점점 더 넓어지며 큰강으로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장쇠야, 개울이 왜 넓어졌가?》

《아니, 정말 개울이 더 넓어졌구나.》

무장쇠도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넓어지는 강을 바라보는 설미의 머리속에는 마을아버지들이 강에서 떼를 못던것이 생각났습니다.

설미는 눈물을 거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앉아있어서는 소용이 없어. 무장쇠야, 마을아버지들이 하던것처럼 우리도 떼를 못자.》

설미와 총각은 커다란 진대나무토막을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칙으로 떼를 무어나갔습니다.



떼를 강물에 띄우자 이제껏 사뭇치며 흐르던 강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그마한 개울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은 떼는 제법 나무다리로 되었습니다.

설미와 무장쇠는 나무다리로 개울을 건넌습니다.

개울을 건너 한참 말없이 걸던 무장쇠가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누나, 왜 강이 넓어졌겠을까?》

《글쎄...》

설미도 눈을 습벽이였습니다.

그들은 수정봉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수정봉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산꼭대기에는 하얀 수정들이 꽃을 이루었습니다.

《야, 수정봉이다.》

설미와 무장쇠는 좋아서 손벽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차 시무룩해졌습니다.

높은 벼랑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던것입니다.

《이 벼랑을 어떻게 오르겠니?》

설미가 걱정하자 무장쇠는 제법 사내라고 앞장서서 벼랑을 돌아올랐습니다.

바위짚에 뿌리를 박은 참나무가지를 휘어잡으며 한치한치 오르던 총각은 휘어잡은 나무가 뽑히는 바람에 그만 높은 벼랑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앗.》

설미가 달려갔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터진 무장쇠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누나, 안되겠어. 저기 평퍼짐한 기슭으로 돌아가자.》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설미와 무장쇠는 산기슭을 따라 나무가지를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장쇠를 부축하며 걸어가던 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장호, 눈을 뜨라구. 왜적들이 또 덤벼들텐데 이려고있으면 어떻게 해?》

활을 멘 웬 젊은이가 쓰러진 사람을 흔들며 애타게 부르는데였습니다.

설미와 총각은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냐?》

《우린 앓는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캐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 참 효자동이들이구나. 우린 수정봉을 지키는 군사들이다.》

《그런데 이 아저씨?》

《수정봉의 귀한 산삼과 수정샘물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왜적들과 싸우다가 그만 화살에 맞았다.》

《왜적들이요?》

설미와 무장쇠는 놀랐습니다.

《무장쇠를 못살게 굴던 왜적들이 여기로 달려들다니?》

《글쎄 말이야.》

참말로 장호라는 젊은이의 가슴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배여있었습니다. 한참후 겨우 눈을 뜬 장호군사는 숨을 몰아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돌이, 내 고향의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꼭 돌아간다고 전하여주게.》

《장호, 그게 무슨 소리야. 기운을 내라구.》

참돌군사는 안타까와 가슴을 쳤습니다.

장호군사는 정겨운 눈길로 설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앓는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캐러 간다고 했지? 참용구나. 효자들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미는 가슴이 찢릿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하는 산삼을 지켜 싸우다 피흘리며 쓰러진 아저씨! 아저씨가 오히려 우리더러 효자라고 하

시는구나.)

《아저씨, 용기를 내세요.》

《오냐, 내 걱정은 말아.》

이때 까만 옷을 입은 왜적들이 산밑에서 무어라고 껍팍 소래기를 지르며 까맣게 기여오르고있었습니다.

《장호, 왜놈들이 또 올라오네. 전통에 화살이 없지?》

《없네.》

화살이 없다는 말을 들은 무장쇠가 생각난듯 군사들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나무가지들을 꺾어 화살을 만들면 안되나요? 내가 꺾어다드릴게요.》

《아서라, 그건 안된다.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 나무를 꺾다니.》

《그럼, 이 돌로 올라오는 놈들을 죽치자요.》

《그것도 안돼. 여기 있는 수정돌들은 다 제 모습을 자랑하며 서있는 보물들이다. 망탕 깨뜨려도 안되고 뽑아서 옮겨놓아도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오는 화살을 잡아서 되받아짜야지.》

《날아오는 화살을요? 하하하. 그러면 왜적들은 제 화살에 맞아죽겠네.》

설미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무수한 돌과 바위로 얼마든지 놈들을 죽칠수 있건만 위협을 무릅쓰고 날아오는 화살을 잡는 군사들! 화살이 없어 칼을 들고 적진으로 향하는 군사들!

(아, 얼마나 장한 모습들인가! 화살, 화살...)

설미는 군사들의 장한 모습에 감동되기도 하고 화살이 없어 안타깝기도 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방울방울 땅우에 떨어졌습니다.

설미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눈물할머니가 준 나머지 구슬 한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수정봉의 풀 한포기도 다칠수 없다.》

설미는 풀대들을 소중히 감싸안았습니다.

순간 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땅우에 서있는 수많은 풀대들은 이 순간에 화살로 되게 아니겠습니까.

구슬눈물방울이 설미가 바라는데로 무수한 풀대들을 화살로 되게 하였던것입니다.

《야, 화살!》

설미와 무장쇠는 땅에서 화살들을 뽑아 군사들한테 섬겨주었습니다. 군사들은 화살을 날려 왜적들을 쓸어놓았습니다.

가슴에 박힌 화살을 부여안고 몸을 비틀며 쓰러지는 놈, 겁에 질려 달아나다 벼랑에서 굴러떨어지는 놈, 살려달라 무릎을 꿇고 짹짹 빌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곤두박치는 놈, 참말 통쾌했습니다.

설미와 무장쇠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군사들은 설미와 무장쇠를 얼싸안았습니다.

《너희들이 큰일을 했다.》

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우나?》

《우에게 아니라 기뻐서...》

이때 등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눈물할머니였습니다.

《실컷 울어라.》

《눈물할머니, 우린 이겼어요.》

《그래, 용쿠나, 뜨거운 눈물구슬의 덕을 본 모양이지. … 이 세상의 눈물은 다 좋은것이지.》

눈물할머니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습벅이었습니다.

《눈물할머니, 눈물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예요. 설미누나가 눈물을 흘리니 좁던 개울이 넓은 강으로 되던데요?》

《그렇다? 하하, 너희들이 실망의 눈물, 비판의 눈물을 흘린게로구나. 그런 눈물을 보어서는 안되지.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따뜻한 마음끝에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참 좋은것이지.》

눈물할머니는 설미와 무장쇠를 대견하게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군사들이 설미한테로 왔습니다.

《자, 이걸 너희들이 지켜낸 산삼이다.》

참돌군사는 단풍잎으로 싼 팔뚝같은 산삼을 설미한테 안겨주었습니다.

《야, 산삼! 아저씨 고마와요.》

설미는 산삼을 불안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무장쇠도 산삼을 꺼안고 잔디밭에 막 덩굴었습니다.

기뻐하는 설미와 무장쇠를 바라보는 군사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가랑가랑 고였습니다.

설미는 기뻐서 막 숨이 넘어갈것만 같았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갈 때는 이 금빛 말을 타고 가거라. 눈깜짝할새에 어머니를 만나게 될게다.》

어머니란 말이 나오자 설미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설미는 어머니생각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크나큰 재부를 지켜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이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 장한 군사들을 이제 가면 언제 또 볼수 있으랴.

보고 또 새겨보느라 눈을 슴벅일 때마다 설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고향마을로 돌아온 설미는 드디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설미가 모진 고생끝에 안고 온것은 산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 참된 행복의 눈물도 가슴가득 찰랑찰랑 넘치게 안고 왔습니다.

《어머니, 뜨거운 눈물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타. 이제야 진짜배기 고운 눈물치녀가 되었구나!》

어머니와 딸은 꼭 껴안고 오래도록 떨어질줄 몰랐습니다.